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비관세장벽 넘어 수출길 닦는 농식품 수출

최근 비관세장벽을 넘어 수출길에 오르는 우리 농식품이 늘고 있다. 삼계탕은 중국과의 검역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對中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신선과일인 포도 역시 검역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수출을 확대 중이다. 이처럼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는 최근 최대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지속 감소하는 중에도 미국, 중국, ASEAN 등 신규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하며 전체 농식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성공사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향후 대외적으로는 FTA 협상을 통해 비관세조치 협력 채널을 구축·활용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해 수입국이 요구하는 위생환경 및 작업시스템을 적극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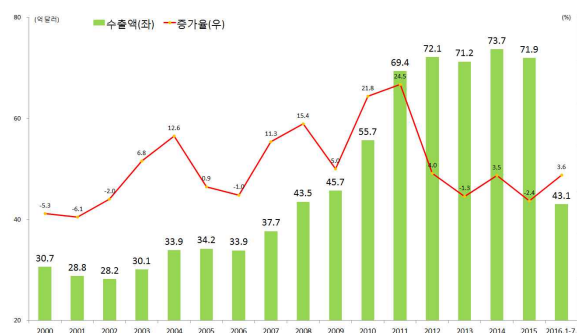
01. 농림수산물 수출동향과 비관세장벽

● 최근 對日 농림수산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중국, ASEAN 등 신규 시장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

- 엔저, 혐한기류 확산으로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규모는 지난해 17.8억 달러를 기록해 '11년 이후 최초로 20억 달러를 하회하였음
- 반면 미국, 중국, ASEAN, 중동 등 신규시장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전체 농림수산물 수출에 버팀목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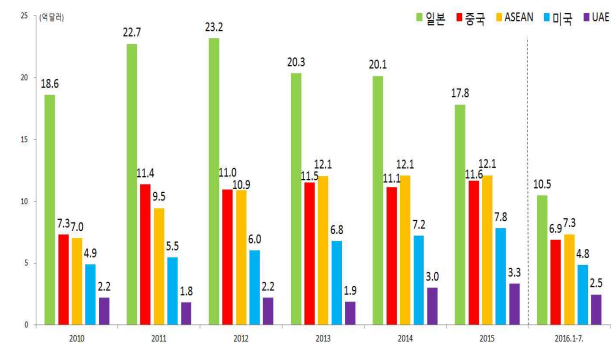
* 국가별 수출 비중 변화('10~'15년 기준, %p) : (일본) -8.6, (미국) +2.1, (중국) +3.0, (ASEAN) +4.2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주 : MTI 0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주 : MTI 0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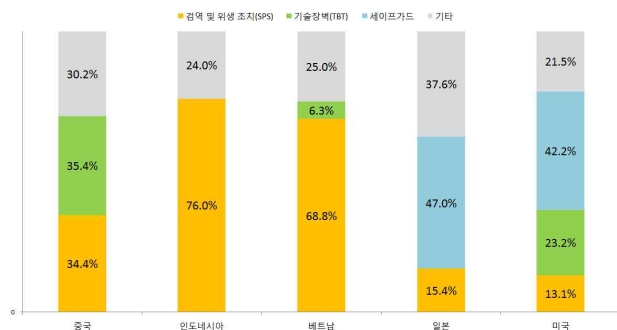
● 신규시장으로 수출 증가는 정부 간 협상과 민관협력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에 기인한 것으로 농수산물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에 기여

• 농식품 수출은 제품 특성상 검역·위생, 인증, 등록제 등 각국 고유의 비관세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출기반을 갖고 있어도 수출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농식품 관련 비관세 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역·위생의 경우 수출 대상국 별로 통상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수입 허가를 획득할 수 있으며 동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5~10년)

• 최근 잇달아 타결된 검역협상 등에 힘입어 미국, 중국, ASEAN, 중남미 등 신규 시장으로 가공식품은 물론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개시·재개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

주요국 비관세조치 유형별 비중('16.8월 기준)



주 : SPS와 TBT는 상대국으로부터 비관세조치를 받은 것으로 WTO에 보고한 통보문을 근거로 집계

자료 : WTO I-TIP

최근 검역협상 타결 실적

연도	내용
2013	냉이(미국), 토마토(베트남), 바파프리카(페루) 등 6개국 7개 품목
2014	삼계탕(미국), 배(멕시코), 파프리카(필리핀), 버섯(칠레) 등 9개국 12개 품목
2015	삼계탕·포도(중국), 딸기(캐나다), 할랄 유제품(말레이시아) 등 9개국 13개 품목
2016	한우고기(마카오), 사과·배·모과(인도)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02. 성공사례로 본 농식품 수출

① 미국 이어 중국 수출길 오른 삼계탕

● 전통식품인 삼계탕의 對美 수출이 '14년 재개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 對中 수출이 정식 개시됨

• '99년 중단¹⁾되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은 '14.8월 재개된 이후 지난해 337.8만 달러 (약 570톤)를 기록해 미국이 일본에 이은 제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함

• 그동안 중국으로는 '보파리상', 우회수출 등을 통해 소량만 유통되었으나 올해 6월에는 20톤 규모의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정식 통관이 이뤄진 첫 사례임

1) 당시 미국은 한국 양계농가에서 발생한 뉴캐슬병과 조류독감을 이유로 한국산 가금육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음

●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1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전체 삼계탕 수출도 지난해 회복세를 나타냄

- 1위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엔저, 혐한기류 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여 '12년부터 수출 규모가 지속 감소하였으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본격 재개되며 '15년 984.9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31.4% 증가

* 2015년 수출 기여율(%) : (일본) -2.3, (미국) 92.4, (대만) 12.7, (홍콩) -2.2

● 삼계탕 수출은 민관협력을 통해 검역·위생 조건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됨

- (미국) 지자체 및 수출업체가 협업하여 국내 위생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미국측이 중시하는 동등성 지위 획득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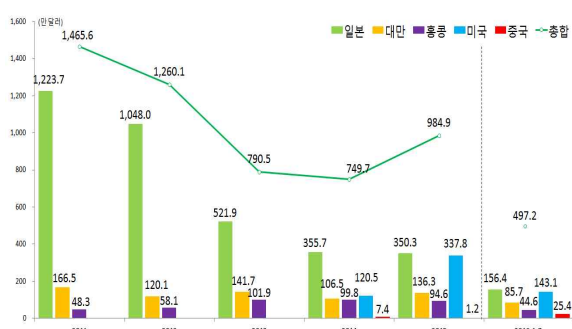
－ 미국은 국내 업체에 대한 1차 실사에서 동등성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정부와 업체가 T/F를 구성해 업체 설비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정부측 수의사 파견, 실험실 검사 등)를 정비해 2차 실사에서 동등성 적합 판정을 받음

* 동등성 평가(Equivalence Evaluation) :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여 인정하는 절차로 육류 및 가공류 수입과 관련해 미국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06년 중국정부에 삼계탕 수입 승인을 요청한 이후 한국정부는 검역·위생조건 완화를 위해 약 10년간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관련협회 및 수출업체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해 왔음

－ 당초 중국이 주재료인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인증을 요구하였으나 5년 이하 인삼에 한해 '12.9월부터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식품원료로 활용 가능

삼계탕 수출 동향



주 : HS 1602321010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삼계탕 검역협상 주요 결과(美, 中)

쟁점	결과
美 위생관리 체계, 도축검사 등이 미국의 동등성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美측 지적	미국 작업장 시스템 국내 도입 / 도축장 수의사를 정부에서 직접 파견(기준에는 업체에서 고용) → 동등성 지위 인정
中 주 재료인 인삼이 중국에서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별도 인증 취득 필요	5년 이하 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 → 인증 없이 식품원료로 활용 가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및 업체 인터뷰 종합

-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중국에 대한 해외판로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EU, 캐나다와의 검역협상이 추가로 타결될 경우 FTA 혜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출 증가 기대
- (중국) 업계에 따르면 1차 물량에 대한 통관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외국계 마트, 온라인 판매, 한국 유통기업 등으로 판로가 확대되고 있으며 OEM 납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최근 한인사회를 넘어서 히스패닉 등 이민자 층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 수출 물량 회복이 기대됨
- 현재 캐나다, EU와 삼계탕 검역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들 지역으로는 FTA 관세인하 혜택도 누릴 수 있어 향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
- 對美 수출 시 일부 업체가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업계는 對中 수출에도 FTA 활용을 준비 중임

삼계탕 주요 시장 관세율 현황(HS160232 기준)

	일본	미국	중국	EU	캐나다
MFN 관세	6.0%	6.5%	15.0%	1,024\$/ton	11.0%
FTA 특혜관세(2016.8월 기준)	없음*	0.0%	12.0%	0.0%	3.5%

주 : *FTA 미체결

[참고] 삼계탕 마케팅으로 만리장성 넘다(이랜드 '자연별곡')

지난해 중국 상해에 문을 연 이랜드의 한식뷔페 '자연별곡'은 개점 초기 당시 고객 모두에게 한방 반계탕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뷔페식 레스토랑임에도 불구하고 반계탕 만큼은 종업원이 직접 손님자리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더해 고객의 입장에서 한국 특유의 보양식을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삼계탕이 '한국인의 보양식'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7월에는 일 평균 900그릇 이상이 소비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삼계탕과 비슷한 중국 고유의 음식인 '계탕(鷄湯)'이 주로 추운 겨울에 먹는 보양식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삼계탕의 성공은 음식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보양문화를 알린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출처 : 현지 조사 및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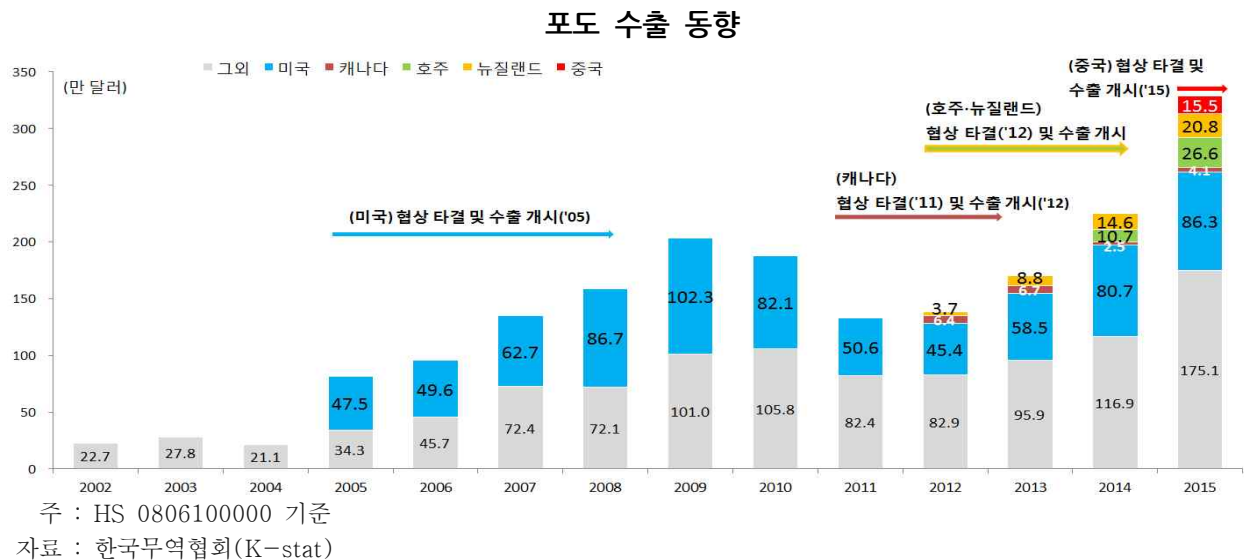
② 한국산 신선포도, 과실류 최초 對中수출 개시

- 한국산 신선 과실류 최초로 신선포도의 對中 수출이 개시됨('15.9월)
- '09년부터 중국에 포도 수입 허용을 요청하여 병해충 위험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5.9월 수출 개시(거봉 4.8톤, 캠벨 5.7톤(상주))
- 포도의 對中 수출은 중국의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 시행 이후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산 신선 과실류의 수출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임

* 중국은 '03.2월부터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생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측에 수입허가를 요청해야 함(단, 제도 시행 이전에 상대국이 상업적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허용)

● 검역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이 해소되면서 포도의 수출대상국과 국별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중국시장 진출이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

• 미국('05), 캐나다('11), 뉴질랜드·호주('12), 중국('15) 등 주요 수입국과의 검역협상이 잇달아 타결되면서 포도 수출 규모는 對美 수출개시 직전인 '04년 21.1만 달러에서 '15년 328.4만 달러로 매년 28.4%씩 성장



● 특히 중국의 포도 수입수요가 최근 5년간 25.4%씩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산 포도는 당도 및 품종에서 중국산 및 미국·칠레산과 차별화가 가능해 향후 수출 확대가능성이 높음

• 중국인이 선호하는 거봉은 한국산이 포장 및 수확 후 관리 체계에서 중국산에 비해 우수하며, 캠벨은 중국에서 생산·수입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산이 유일함



한·중 주요 포도품종 비교

구분	한국산		중국산		
	캠벨	거봉	거봉	롱안	무학백
당도(Bx)	13-14	17이상	13-16	16.2	22
과방중(g)	350	500	200-1000	694	380
과립중(g)	6	12-14	7-11	6.5	2
특징	거봉보다 신맛	과즙 多, 연함	중국인 가장 선호	과즙 多, 저장 용이	얇은 과피, 높은 당도
수확기	8월 하순	6~10월	9~10월초	10초중순	-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 對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수출 안전성검사 지원

● 인도네시아의 수입 신선농산물 안전성 관리규정 변경*에 조기 대응하여 국내에 신선농산물 안전성검사 실험실을 운영함으로써 수출 단절을 방지

-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수입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6.2월부터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103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국의 실험실에서 안전성검사를 통과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음

* 과실류 : 포도, 사과, 딸기 등 43종 / 채소류 : 양파, 마늘, 토마토 등 36종 / 그 외 : 곡류견과류두류 등 24종

-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실험실이 없는 경우,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원천 차단될 위기였으나 제도 시행 전인 ‘15.8월부터 실험실 등록을 추진해 총 10곳의 실험실 등록을 완료(‘16.1.)하여 차질없이 수출 진행

주요 수출국의 실험실 등록 현황

국가	등록수 (개소)	수출규모 (‘15. 천 달러)	등록일
중국	12	572,689	’16.2.16.(1) ³⁾ ’16.6.14.(11) ³⁾
아르헨티나	3	305,761	’16.2.25.
태국	9	170,236	’16.1.22.
베트남 ²⁾	10	168,518	’16.2.15.
네덜란드	4	7,035	’16.2.25.
칠레	7	5,992	’16.6.29.
인도	6	5,179	’16.2.25.
한국	10	2,998	’16.1.22.
일본	5	446	’16.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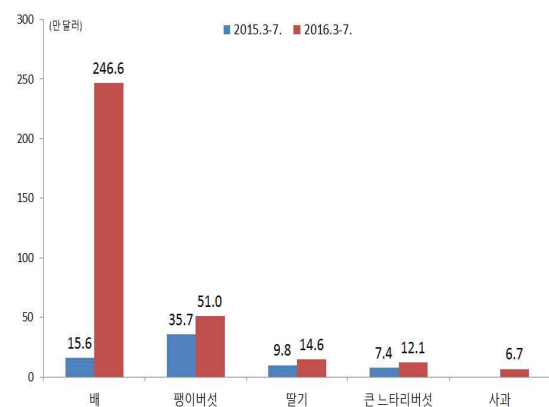
주 : 1) 수출규모는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신선 과채류 및 곡류로 한정하여 산출

2) 통계미비로 2014년 기준 산출

3) ()안은 해당 일자에 등록이 완료된 실험실 수

자료 :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 UN Comtrade

對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수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안전성검사 실험실 운영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ASEAN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주요 계기가 될 전망

-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중 베트남, 태국, 필리핀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배, 딸기 등 한국산 신선농산물은 현지에서도 고급 슈퍼마켓 등을 통해 고소득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음

- 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통해 신선농산물 수출 발판을 확보한 만큼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 완화* 및 할랄인증 등을 병행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필요

* 인도네시아 정부가 농산물 수입 시 최대 소비지인 자카르타 인근의 항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신선농산물 현지유통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

03.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농식품 수출은 정부 간 협상, 민관협력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에 힘입어 미국, 중국, ASEAN 등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수출 품목도 다변화되고 있음
 -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국 등 신규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농수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특히 삼계탕(미국, 중국), 포도(중국) 등 최근 검역협상이 타결된 품목들의 수출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농식품 수출 활로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농식품 수출 확대를 목표로 비관세장벽을 해소·완화하기 위해서는 FTA에 마련된 주요국과의 비관세장벽 협의 채널을 적극 확대할 필요
 - ASEAN과의 추가협상 및 중국·인도를 포함하는 RCEP 협상을 통해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협정문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나아가 개별 기업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처 간 소통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비관세조치는 상대국 정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협상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개별 기업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업계와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임
 - 또한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비관세 조치의 대부분이 검역·위생 관련 조치로 협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계 수요 및 수출규모 등을 고려해 품목별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